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에 출연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4억1,900만원의 출연금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2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4억1,900만원의 임의출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출연금은 올해 상반기 특별출연금 44억원에 이어 추가로 지원된 임의출연금이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하반기 출연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총 출연 규모가 7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병오년, 산내면서 삼계탕으로 행복한 출발

전북 · 정읍자봉센터,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행사 개최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임찬규)와 함께 병오년을 맞아 첫 번째로 23일 정읍시 산내면 종합체육센터에서 3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읍시재가복지협의회, 산내면부녀회, 국제와이즈맨 자원봉사자들이 푸드봉사단을 이루어 이른 아침부터 삼계탕을 준비했고 네일아트봉사단, 메이크업봉사단, 밸리댄스 봉사단은 미용 봉사로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으며, 특히, 치매안심센터, 금강보청기, 사회적 협동조합 더미래, 귀반사봉사단 등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건강에도 활력을 선사했다.

오늘 행사에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작을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임찬규)는 "오늘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행사가 단순한 식사지원을 넘어 이웃 간 정을 나누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또,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로 정읍시를 아우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는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이번 진행된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행사와 같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원봉사를 실천해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오늘과 같은 행사가 자원봉사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전북자원봉사 센터를 비롯한 14개 시군 지자체와 소통하겠다."며 행사를 마쳤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여경협 전북, AI 활용 교육… 리더십스쿨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여성기업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리더십스쿨 및 2026년 6월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여성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소정미 전북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원 동정과 주요 사업 안내가 진행됐으며, 이어 제4차 리더십스쿨 프로그램으로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이 열렸다.

특강은 김영문 강사가 맡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실무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자료 수집 방법과 아이디어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기법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월례회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전'과 7월 9일 개최 예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7주년 기념식'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전북지회는 여성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회원 간 화합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경위, 부안 범죄예방 환경개선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부안 서림공원 일원에서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범죄예방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사업 추진 전·후 변화와 범죄예방 효과를 살펴보고 현장 중심의 치안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정책공모 분석 과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 시·군 공모계획' 등을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범죄예방 사업 확대 방안과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자치경찰 사무 수행과 지역 치안질서 유지에 기여한 부안경찰서 경찰공무원 2명과 시민경찰연합회, 방범자문위원회 등 치안협력단체 관계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출소자 재범 막으려면 일자리 · 신뢰 · 지역사회 연계 중요"

전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 정기회의
취업 · 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등 제시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태명)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출소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교정정책자문위원과 내부위원 등 총 9명과 전주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전주교도소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교정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상생협력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전주교도소는 인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에도 교도소 주변 초·중·고교 학생 11명에게 총 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억3,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위문활동과 환경정화 봉사, 연탄 기부 및 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명 위원장은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위원은 교도관 재직 시절 취업·창업 지원 업무 경험을 소개하며 "출소자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재범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교정위원과 교정행정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각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출소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멘토링 사례를 소개하며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과 휴대전화 사용법 안내, 취업 연계 등 작은 관심과 지원이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승원 위원은 "교도소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정기관과 보호관찰기관, 복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순철 위원은 "출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의 신뢰와 인정"이라며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격려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선순 위원은 장기 수형생활을 한 출소자들이 금융거래, 휴대전화 사용, 키오스크 이용 등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소개하며 출소 전 사회 적응 교육과 출소 후 지속적인 멘토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국 위원은 가석방 조건부 취업제도 등을 통해 사회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조기에 출소시켜 교정교화 수용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취업 및 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사회적 지지망 구축 △출소 전·후 연계 멘토링 체계 마련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 연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명 위원장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정민 전주교도소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정행정에 적극 반영해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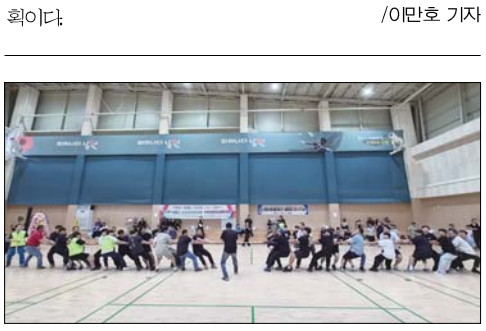
김제자봉센터, 전북희망여름 나눔 캠페인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는 지난 22일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제시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여름나기 키트 140세트를 마련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준비된 여름나기 키트는 선풍기, 여름이불, 물파스 등 여름철 필수품 9종으로 알차게 구성됐으며, 센터임직원들이 직접 포장 작업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남원 소상공인연합회,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제3회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상호 간 소통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경기와 화합행사,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며 화합을 다지는 모습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경품 행사와 기념품 제공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강상남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어 남원의 경제가 더욱 활력을 얻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회원 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 2분기 '자랑스러운 혁신 주인공' 2명 선정

오경석 · 정희수 주무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2분기 '노사가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오경석 주무관과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산업과 정희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분기 주제는 적극행정을 통한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선구자 주인공'이다.

오경석 주무관은 계절별 안전점검과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추진해 올해 5월 기준 도내 건설현장 사고 발생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49%(88건→45건)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부실 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사전 지도를 병행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과 업체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조직 내 자율적인 소통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일행복 충전데이'를 운영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도 앞장섰다.

정희수 주무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 주요 사업을 총괄하며 전북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에 성과를 내며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만호 기자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에 하지감자 제공

남원시 산동면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사랑의 농산물 함께 심고, 함께 나누고'를 추진, 수확한 하지감자를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약 100여 가구에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산동면은 1일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생활상과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에 하지감자 제공

남원시 동충동은 23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빵 250여 개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빵나눔 프로젝트 '같이의 가치-함께하면 좋은 세상' 6회차 활동으로 추진되었으며, 꿈드래 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가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이백면 허브앤 베이커리 제빵소에서 직접 빵을 만들고 정성껏 포장했으며, 동충동 통장협의회는 전달받은 빵을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